

## 주식투자 실패담 담은 이색시집 정책에 희생된 서민의 좌절 그려

— 「한줌 재도 없이…」 낸 정태승씨

이 책 그 사람

예술을 향한 예술가의  
집념은 나이와 같은  
일상적 기준을 무시하게  
하는 마력을 지닌  
것일까. 불혹을 넘긴

나이로 문단에 데뷔한 늦깎이 시인 정태승씨  
(46)의 모습에서 그 생각은 단단히 굳어진다.

나이에 걸맞는 ‘중년의 안정감’과는 거리가  
먼 열정과 순수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첫시집 「한줌 재도  
없이 사라진 종이꽃」(민들레)을 조심스레  
펼쳐보인다.

그런 그가 고교재학시절부터 꿈꾸어 오던  
시인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해변시인학교에 무작정 참가했던 어느 해.  
그후 습작기를 거쳐 1983년 ‘심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지극했던 꿈을 이루지만, 직장도  
뎡개치고 시쓰기만을 고집하던 그에게 안겨진  
것은 극심한 생활고 뿐이었다. 그래서 나선  
것이 술장사. 다섯평 남짓한 생맥주집도  
해보았고, 인사동 골목 허름한 건물에 세들어  
‘시인학교’란 간판을 걸고 까페란 것도  
해보았지만 장사도 시도 두 마리 토끼가 돼  
낙심만 더해갔다.

“생활과 문학 사이에서 방황하다 보니 둘 다  
뜻대로 안되더군요. 주식에 모든 걸  
투자하고서 시에만 매달릴 작정이었습니다.”

주위의 권유와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업”  
이라 안심하고 투자했다는 그의 ‘순진한 계획’  
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날만 새면 폭락하는  
주가에 밤잠을 설치고, 객장의 시세판을 종일  
지켜보면서 ‘한줌 재도 없이’ 사라지는  
종이꽃의 낙화에 분노와 절망을 곱씹으며  
연작시 「객장」을 쓰게 된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소액투자자들의 원망을 담은 이 시들은

이번 시집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지만,  
그가 보다 많은 애정을 갖는 것은 연작시  
「민들레 일기」를 비롯한 서정시.

자전적 이야기를 우리의 들뜬과 길가를  
수수하게 장식한 민들레를 통해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일련의 ‘민들레詩’ 말고도  
「목상」 「겨울나기」 「거리의 악사」 등의  
시에서 그는 잘 정제된 언어의 섬세함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민들레 박사’로 불려지는 정태승씨의  
민들레 강의는 숙박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못들을 정도로 긴 강의이지만, 듣다보면 그의  
식물학에 관한 해박함보다는 민초들의 삶과  
민들레의 일생을 빗대는 풍부한 상상력과  
애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들레는 찾으려고 하면 절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때 자신의 발을 들여보면 영락없이  
그 자리엔 민들레가 밝혀 있어요.”

사할린에 남은 생면부지의 아버지와 눈물을  
젖삼아 삼남매를 키운 어머니, 그리고 항상  
뒷전만을 맴돌아야 했던 그의 삶은 “여리게  
타오르는 고통의 빛갈 / 망을 터지는 기다림의  
속살 / … 양지 바른 곳”에 핀 민들레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요즘들어 출판사 일과 교회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그는 굳은 믿음에서  
우러난 ‘신앙시’를 쓰는 꿈꾸기에 열중하고  
있다.

— 최태원 기자



## 취재기자가 밝히는 역사적 사건의 뒤안 지난 시대 조명에 사실적 기초 제공

— 「어두운 시대의……」 펴낸 김건씨

이 책 그 사람

‘역사적 사건의  
객관적 기록자’라는  
의무를 걸머지고 있는  
신문기자들은 그  
‘객관성’이라는

여과장치 덕분에 활자화된 기록 이외의  
餘記들을 자신의 기억 속이나 취재수첩의 한  
귀퉁이에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기자생활 20여년의 대부분을 사회부에서  
사건현장을 쫓으며 보낸 김건(52, 서울신문  
심의위원)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는  
최근 그러한 ‘남은 이야기’ 들을 모아 책을  
펴냈다. 「어두운 시대의 우직한 특種」(햇빛)이  
그것.

인류학을 전공, 학문을 계속할 뜻을 품었던  
그가 언론계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대학  
졸업 이듬해인 1967년. 조상대대로 諫言기관에  
봉직했던 분이 많았던 집안 내력과,  
반골기질이 강하고 남 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마다않는 호사가였던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준 것은 관직에 대한 무관심과 가난.  
이러한 이유들로 그는 별다른 주저없이 그의  
삶의 방향을 언론계로 결정짓게 되었다.

기밀을 유지하며 인쇄중에 있던  
‘민방위법안’을 의문스럽게 빼낸, 입사 6개월  
만의 ‘우직한 특種’ 이후 사회부로 옮겨 앉게  
된 그는 당시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취재하는 행운(?)을  
얻었다. ‘동백림’ ‘문세광’ ‘여수 밀수단’  
‘남민전’ 등. 이 책에는 그가 취재한 이러한  
사건들의 배경과 그것을 통해 살펴본 지난  
시대의 어두웠던 역사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한 사건에 매달리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때로는 테러와 구속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던  
그의 취재일화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내가 사회부기자로서 일선에서 보냈던  
70년대는 정치적 비민주를 담보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그 파행적인 발전과정에서  
사건도 많았던 격동기였습니다. 물론 그 사건  
하나하나는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필연성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연성에 대한 이해는 현재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도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대를 올바르게 조명하는 데 제  
경험이나 생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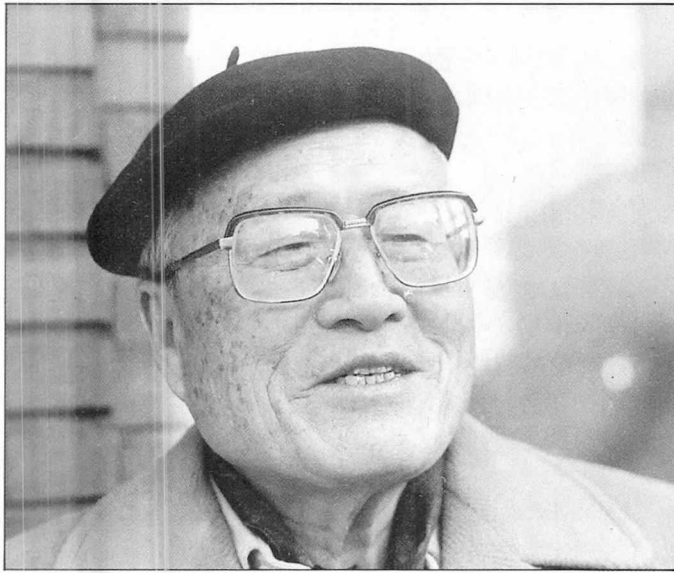
사람들의 호기심이란 늘 숨겨진 뒷이야기에  
모아지기 마련이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  
진실이 가려지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던 것이 우리 언론의 한 측면이고 보면,  
격동의 현장을 총횡무진한 그가 털어내놓는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사회부 기자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박진감 넘치는 문체 또한 이 책을 읽는 기쁨  
중의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을  
세간의 호기심이나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게  
해주는 것은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역사의식과 인간애.

“언뜻 보기에 내 글이 과격해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온건론자입니다. 역사가  
順理에 따라 흐른다는 것을 믿는  
한에서는 말입니다.”

직분이 바뀌면서 좀 늘어난 여유와 몸에 밴  
속필 습관 덕분에 그는 이번책의 원고를  
3개월여 만에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농촌의 실상을 파헤친 현장 르뽀 등  
몇권의 책을 더 펴낼 계획이다.

“역사의 순리에 옹하기 위한 내 삶의 임무요  
행동양식은 오직 ‘기록’일 따름입니다.”

— 박남정 기자



## 30년대 연극실상 밝힌 체험적 기록 왜곡된 초기 동양극장 위상 바로잡아

—「증언 연극사」 펴낸 고설봉씨

이 책 그 사람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연극인'은 아직까지도 그 생활의 뿌리가 그리 탄탄하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한편의 작품을

완성해내기까지의 공동작업과 관객과의 직접적인 맞닥뜨림에서 오는 생생한 현장감은 그들로 하여금 평생 무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흡인력을 갖기도 한다.

일제하인 1937년 연극계에 입문한 이래 50여년간 무대를 지킨 '원로'이자 '현역' 배우인 고설봉씨(78)가 최근 펴낸 「증언 연극사」(장원재 정리, 진양출판사)는 30년대 이후 한국근대연극사의 흠어진 조각을 맞추는 체험적 연극사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책은 연구생으로 입단, 자신의 초창기 연극활동의 터가 됐던 동양극장에 대한 서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그간 일정부분 '왜곡'돼왔던 30년대 연극계의 실상을 바로잡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연극계의 주축을 이뤘던 것은 근대적 연극미학의 이론을 펼친 젊은 지식층의 극예술연구회와 기성연극인들이 모인 동양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개의 연극사는 극예술연구회의 활동에 치중하면서 동양극장은 신파극 전용극장쯤으로나 치부하고 있어 그동안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에 따르면 동양극장은 최초의 연극전용극장으로 박진, 홍해성씨 등 정통신극연출가들이 낙후된 연극환경을 개선하고 당시 유행했던 신파극에서 벗어나 근대적 연극기법을 시도했던 무대였다는 것.

극장의 설립배경에서부터 운영방식, 연구생제도, 내부시설, 작품선정과 연습과정,

관객의 취향, 공연작품에 이르는 그의 상세한 '증언'을 통해 동양극장은 신파극에서 신극으로 이행하는 과도기, 신극의 모체로서 자리잡게 된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신파극 이전의 구파극과 20여명에 이르는 30년대 연극인들의 면모를 소개함으로써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여러 면에서 연극환경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연극인들은 오히려 30년대 당시보다 기본적 태도에서 뒤진다는 느낌이 든다”는 그는 “붓끝이나 입으로 연극을 해선 안된다”던 홍해성씨의 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작품을 선뜻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작품 하나하나에 애착을 갖고 있는 그는 과거 거의 매일 무대에 섰던 시절과 비교해 많이 '한가해'졌지만, 이제 그의 무대는 단순한 극장무대의 영역을 넘어 이른바 '연극촌'으로 자리잡아가는 동승동이 되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의 모습은 그곳 어딘가에 묵묵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그가 출연하고 있는 작품은 고리끼 원작의 「밤주막」이다. 1차 공연을 마치고 곧이어 2차공연에 들어가는 이 작품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대사 한마디 없이 잠시 앉아있다가 사라지는 노인이다.

그러나 그의 '단역'에는 필설로 담아내기에는 버거운 오랜 시간의 무게가 배어나고 있을 게다.

— 정소연 기자



## '큐' 사인에 얽힌 野한 이야기 모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송 이면사

—「뉴스를 말씀드리…」 펴낸 이계진씨

이 책 그 사람

2분 간격으로 웃음을 보장받을 수 있대서 코믹한 유머편치류의 책임 것이란 생각은 속단이다. 한바탕

웃어쪼뻐 후엔 웬지 자연스럽게 표정이 완만되지 못한 채 씩씩한 여운을 남긴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 선사하는 포복절도할 웃음은 차라리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남의 허를 칠 웃음의 비위를 간직한 구석이라도 찾을 수 없는, 그저 '듬직하다'는 말 외엔 달리 특징지를 수식어가 없는 아나운서 이계진(KBS·45)씨가 최근에 펴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우석)이 예의 그 웃음보따리이다.

뉴스보도중 딸꾹질해 버린 한 아나운서의 실수를 제목으로 갖다붙인 데서 이미 짐작할 수 있듯 이 책 속에는 방송현장의 크고작은 사건, 사고를 비롯해 굴곡 많았던 현대사의 격랑에 함께 흔들려왔던 방송계의 뒷얘기, 즉 그 안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秘話·野事들이 가득 들어 있다.

“역사라는 게 正史뿐 아니라 비사와 야사도 함께 살펴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듯, 우리네 방송의 역사도 기록되어 오는 정사에 빠져있는 그 이면사를 기록해둬으로써 한국방송사를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살피는데 도움될 것 같아 입사 이듬해인 74년부터 일종의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빠짐없이 메모해 두었지요.”

심지어 술좌석에서까지 '꺼리(?)' 다 싶으면 무조건 종이조각에 써서 대학노트에 옮겨두거나 붙여두길 10여권째, 그러던 차 어느 여성지의 청탁으로 그 내용 중 일부들

1년간 연재했다. 그것을 이번에 책으로 묶은 것이다.

“남의 실수를 보며 박장대소하는 가운데 방송일이 갖는 어려움을 시청자들과 공감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70~80년대의 시대상과 제대로 방송을 내보낼 수 없었던 당시 사정이 어땠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 시도에서 이 책의 시작은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던 날 아침, 마침 숙직근무를 했던 모아나운서가 무장한 군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혁명의 제일성을 알려야만 했던 살벌한 시절의 기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시(?)만 해도 서슬퍼렇던 한 치안책임자가 생방송프로에 나와 “요즘 인플레가 걱정이다”는 말에 “뭐라고? 그 인플레 잡아들여!”하고 소리쳤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와, 새벽뉴스시간에 임박해 잠에서 깨어난 한 아나운서가 웃웃만 멀끔히 걸치고 아래엔 파자마바람으로 뉴스데스크에 앉던, 시청자들의 눈으론 확인할 길 없는 가가대소할 이야기들이 수두룩하다. 내용들 대개가 남의 실수, 뒷얘기 중심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남의 흉을 보는 듯 비칠 수 있는데, 악의없는 집필이니 웃으며 읽어달라는 게 동료들에 대한 그의 부탁.

13페이지에 걸쳐쓴, 그의 표현대로 ‘한 그루 전나무’처럼 살다간 걸출한 아나운서이자 참언론인이었던 고 장기범 아나운서에 대한 기록을 이 책 중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그는 꼽았다.

— 정혜옥 기자